

# 사학사 통해 성찰한 한국지성사의 흐름

조동걸 외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 조 광

고려대 교수·한국사

史學史는 원래 역사 서술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학사는 지난날 역사연구자들의 내용이나 방법에서 드러나는 특성을 밝히는 작업이다. 그렇다 하여 사학사의 서술이 史籍 해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사적 해제에서는 편목이나 내용 그리고 출판 상황과 같은 그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외적 특성만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사라 할 때에는 이러한 외적 특성과 더불어 지난날의 역사가들이 자신의 역사서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서술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사학사는 역사가들이 자신의 시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시대 인식과, 역사의 진행 방향 및 목적에 관한 역사철학적 성찰과정을 밝히는 작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사학사는 역사 서술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유의 역사이다.

### 한국사학사에 대한 종합적 성찰 보여줘

그러므로 사학사를 서술할 때에는 연구대상이 되는 역사가가 서술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그 역사가가 살았던 시대의 정신을 주목해야 하고, 그 시대정신과 역사가 사이의 교호작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역사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영향을 받으며 역사를 서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역사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매몰되지 않은 아니하고 그 시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 하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우리는 한 역사가의 저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학사에서 새 역사의 방향을 지향하는 그 정신적 특성도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사학사는 정신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사학사는 역사학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의 역사를 해명해 준다. 또한 사학사는 사상과 정서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표현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성사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사학사에 대한 연구는 인간 지성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준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자신의 역사를 서술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장구한 기간에 걸쳐 역사를 서술했지만 이 역사 서술의 역사나, 역사가 자신에 대한 연구는 상

사학사는 역사서술의 역사이자

역사적 사유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사학사에 대한 연구는

인간지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이다.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은

한국지성사 이해의 길라잡이다.

그러나 세계정신사적 스펙트럼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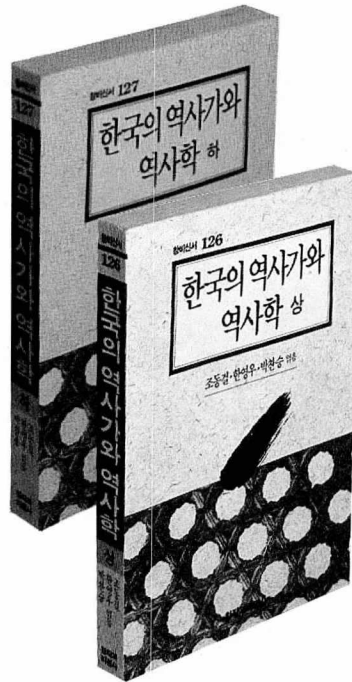
우리 역사인식의 고유한 특성·수준을

규명하는 데 미흡하다. 이 책은

그것을 뒷날의 연구자들에게 위임한다.

당히 뒤늦게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학사 자체가 역사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매우 의아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사학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엄밀히 말하여 1960년대 이후였다. 물론 그 이전 1930년대부터도 우리의 전통적 역사서에 대한 관심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사학사의 입장이서가 아니라 단순한 사적 해제의 수준에만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6년에는 창작과비평사에서 「한국의 역사인식」(李佑成, 姜萬吉 편)이 간행되어 그동안 성취된 사학사에 관한 업적을 정리해주었고,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1980년대 이래 한국사학사의 분야에 있어서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수렴하고 한국사학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다른 연구업적의 제시가 요청되었다. 이러한 학계의 요청에 부응하여 창작과비평사에서는 두 권으로 된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조동걸, 한영우, 박찬승 엮음)을 간행했다. 이 책은 모두 7부로 나뉘어 있다. 즉 제1부는 '고대'로서 삼국 및 통일신라의 역사서술을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고려시대의 역사연구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3부는 조선왕조시대의 역사가들을 다루었으며, 이 책에서는 이어서 근대 초기와 항일운동기의 역사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내주었다. 그리고 '민족국가 건설운동기'의 사학에서는 식민지시대 후반기에서 해방 직후까지 활동했던 연구자들을 서술했고, 마지막으로 남북 분



단기의 역사연구 상황을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의 엮은이들은 우리나라의 사학사 내지는 지성사의 흐름에 적지않은 관심을 기울여 왔던 연구자들이다. 그리고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40명의 연구자들도 대부분 우리나라 역사학의 연구와 서술의 전통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 진력해 왔던 사람들이다.

### 우리 지성사의 흐름을 밝혀준 노력

이 책은 분명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한국사학사의 연구를 총정리하고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준 중요한 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는 앞으로 이 책의 수준을 능가할 새로운 연구에 착수해야 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사학사 연구에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몇몇 원칙에 관해 거듭 확인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 원칙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책을 포함한 기존의 업적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칙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사학사를 서술할 때에는 연구대상이 되는 역사가나 역사서술이 존재했던 당시의 시대와 정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집필자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책은 한국사학사를 올바르게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한국사학사의 서술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적 스펙트럼 내지는 세계의 정신사에 대한 관심과 시야가 요청된다는 점이다. 전근대 사회의 우리나라는 오늘날과는 달리 정보

의 교류와 유통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동아시아의 연구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지적 연대감이 존재해 왔다. 우리의 역사연구자들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과 긴밀한 관련을 맺어 왔고, 중국의 역사 서술방법과 역사인식의 특성을 참고하거나 비판해 가면서 자신의 그것을 결정해 왔다. 또한 근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종전과는 달리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으며, 세계사의 주요 조류들은 우리의 역사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쳐주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인식의 고유한 특성이나 수준을 기밀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한 나라의 사학사를 연구할 때에는 자국사에 대한 연구업적 뿐만 아니라 외국사에 대한 자국인의 연구업적도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인들이 연구한 외국사에 관한 연구도 한국사학사의 서술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근대 사회에서 활동했던 우리의 역사 연구자들은 대부분 자국사 이외에 중국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사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진행시켰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들은 외국사의 연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역사인식을 표출해 주고 있었다. 사학사가 역사가와 역사인식의 역사라면, 한국사학사에서 당연히 그 외국사의 연구를 통한 역사인식의 표출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랑스나 독일 등의 사학사를 논할 때 그곳에서 연구된 로마사나 그리스사를 비롯한 외국사에 대한 연구업적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의 사학사 서술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의 필자들은 이 두번째와 세번째 원칙의 서술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뒷날의 새로운 연구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은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 생산된 매우 중요한 연구업적으로 꼽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한국사학사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문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교과서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지성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창작과비평사/A5신/442, 478면/각 9000원